

“부결돼도 유리”...민주당 꽃놀이때 한국당은 보수층 결집 실날 기대

개헌정국과 지방선거...여야 유불리 셈법 복잡

국회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개헌 정국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헌 정국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꼭 야권에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은 개헌 논의를 연결고리로 이번 선거를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지방분권은 물론 기본권 향상,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개혁적인 가치를 헌법에 담고, 이를 정부가 제대로 구현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개헌이 선거의 중심 이슈가 될 경우 각종 선거 때마다 야권이 꺼내드는 ‘헌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결국, 개헌안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개헌 논의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쁠 것

개헌 이슈에 ‘정권 심판론’ 희석

지나친 드라이브는 역풍 불 수도

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개헌 정국이 여당에 무조건 좋을 것이라 예상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앙당 한 관계자는 “개헌 정국과 남북정상회담 등 모든 여건이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악재로 변할 수 있다”며 “그동안 선거에서 그랬듯이 지나치게 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국민의 견제심리를 자극, 야권의 손을 들어주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헌 정국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 대다수 관측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개헌이 지방선거와 겹치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수도권에 한국당 소속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아마도 계속 한국당 때문에 개헌이 안 됐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 카드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며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요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은 새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헌세력이고, 자신들의 개헌스케줄에 동참하지 않으면 낡고 수구적인 호헌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지나친 ‘개헌 드라이브’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중도보수까지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왜 이렇게 개헌에 집착하는지는 의구심이 든 중도보수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도 개헌 정국이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유희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지방분권의 가치가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가정하면 여권에 유리한 것이 맞다”며 “지방분권에 찬성하는 여권,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희화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개헌안에 관심이 집중되면 다른 국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약해지고 여당으로서 방어가 쉬워진다”며 “만일 부결된다면 야당이 부정적 이미지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여야 개헌협상 시작부터 공방전 시기·내용 놓고 첨예한 입장차

3당 원내대표 50여분간 논의

다음 회동서 문서 제출키로

“결단만 남아” “정치쇼” 입씨름

국회 개헌 논의에 나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협상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4시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50여 분간 개헌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 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개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개략적인 얘기를 했다”며 “다음 모임에서 4가지 주제에 관해 각 당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해서 제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당이 자기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우리 당론을 수용한 것이라 그것을 문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서 논의 내용은 완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가가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 데도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져간다니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내용을 어떻게 올릴 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회동에서부터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겠지만 4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날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개헌 신경전’은 여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5개월간 개헌 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쟁점과 내용은 충분히 나왔다. 각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하려는 입장이 개헌 곳곳에 다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하고,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눈앞에 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개헌안 논의 착수를 비판하면서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를 방문해 한 부대원의 요청으로 빵을 쓰다듬어 주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협력관계 에너지·건설서 정보통신·재생에너지로 확대

문대통령, UAE 모하메드 총리 회동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회동하고, 두바이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UAE는 7개 에미리트(토후국)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관계적으로 아부다비 통치자가 대통령을, 두바이 통치자가 부통령 겸 총리를 겸직한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리더십이 혁신과 개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이번 방문이 양국간 보다 높은 차원의 호혜적 실질협력을 모색해 나갈 적기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총리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한국과 두바이 간 실질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동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기구(BIE) 등록 엑스포인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한국도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대형 한국관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계약’을 통해 엑스포와 관련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관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정보통신, 우주탐사, 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차량 개발 등 첨단·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두바이에 약 5000 명의 우리 국민과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음을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관심을 두고 계속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 최고층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를 우리 기업이 시공해 두바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등 성실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UAE측은 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석유·가스 분야 협력을 넘어 정유와 석유화학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며 한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가 이렇게 혜택을 주려 하는 이유에 대해 ‘UAE는 한국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을 태우고 직접 차를 운전하는 의전을 봐도 UAE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기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징거미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양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시기간에 수확해 큰징거미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흰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곤 (52)
경남 고성 안녕양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흰다리새우 22kg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t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I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